

'V13' 가는 길, 테스형 동행할까?

올시즌 타율 0.310, 26홈런... 공격 지탱 꾸준한 클리치 능력 '최고' 상대 압도 공격력·파괴력 겸비 '결정적 한방' 부재 '존재의 아쉬움'



테스형의 응원가를 내년에도 야구장에서 들을 수 있을까?

외국인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가 내년 시즌 KIA 타이거즈의 성적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의 거취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KIA에 입단한 그는 3년 통산 타율 0.302, 63홈런, 270타점, 266득점, 장타율 0.491을 작성하며, KBO를 대표하는 외국인 타자로서 우뚝 섰다.

올 시즌은 3할 타율(0.310), 26홈런, 97타점, 92득점, OPS(출루율+장타율)는 0.875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5경기 3할 타율(20타수 6안타), 1홈런, 5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통산 12번째 팀 우승에 힘을 보탤다.

그럼에도 내년엔 KIA에서 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는 시즌 초반 때 타율 2할 중반대에 머물러 퇴출설에 휘말리는 등 입지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특히,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되는 파괴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공격을 지탱하는 꾸준한 클리치 능력이다.

KBO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경기 전반에 걸쳐 고른 타율을 기록했다.

이닝별 타율은 1-3회 0.291, 4-6회 0.325, 7-9회 0.312로 매우 좋다. 그중, 4-6회엔 장타율(0.565)도 가장 높아 경기 중반에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다. 이는 상대 투수들이 교체되거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도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또한, 동점 상황에서는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특히 7-9회 동점 상황에서 타율 0.471(17타수 8안타), 장타율 0.529를 기록하며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빛을 발했다. 이러한 클리치 능력은 상대 투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팀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그의 약점은 경기에서 팀이 불리한 상황일 때 도드라진다. 일례로 팀이 1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타

율은 이닝별로 1-3회 0.267(15타수 4타수), 4-6회 0.280(25타수 7안타)이고, 특히 7-9회엔 타율(20타수 5안타)과 장타력이 0.250으로 가장 낮다.

이는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에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타자에게 요구되는 장점 중 하나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장타력과 홈런 생산 능력이다.

소크라테스의 올시즌 장타 기록은 홈런 26개, 2루타 30개, 3루타 3개로 리그 전체 10위 내의 안정된 장타율(0.516)을 자랑한다. 하지만 경기 후반(7-9회) 1점차 열세 상황에서는 단 1개의 장타도 기록하지 못했다. 후반 이닝 프레스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그러나 그의 공헌도를 그저 타격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크라테스는 타격 외에도 수비와 주루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팀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3년 연속 10도루 이상 기록하며 외국인 선수로서는 드문 주루 능력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넓은 커버 범위와 빠른 발로 외야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공격적인 파괴력이 간혹 아쉬웠지만, 공수주를 모두 겸비한 '만능 선수'라는 점은 KIA로서 쉽게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춘 용병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을지 구단 수뇌부가 분명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KIA 관계자는 "올해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그의 뛰어난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을 열어두고,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KIA가 소크라테스와의 동행을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로 눈을 돌릴지, 그 결과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WBC 출전, 꿈이 생겼다"

세계무대에서 실력 입증한 김도영 "더 성장할 것"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는 한국 야구의 아이콘 김도영(2·KIA 타이거즈)이 더 큰 무대를 향해 뛰는 도약대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목표로 삼았던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지만, 김도영은 전 세계 수준급 투수들을 상대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국내 야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김도영 역시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목표를 새긴 듯했다.

김도영은 야구대표팀이 귀국한 19일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이 생겼을 것 같다"는 질문에 "최종적인 꿈이 있다"며 "그동안 '내가(국제대회에서) 통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L) 출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도영은 "WBC는 야구 국제대회 중 가장 큰 대회"라며 "아직 어리지만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도영은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고정 3번 타자로 출전해 타율 0.417(17타수 7안타), 3홈런, 10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안타 7개 가운데 장타가 5개(2루타 2



WBSC 프리미어12 2024에 참가한 김도영이 19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홈런 3개)나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타력을 뽐냈다.

김도영은 출루한 뒤에 빠른 발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고 수비에서도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다.

그는 특히 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도영은 낮은 자세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영은 "이번 대회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준 높은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이 영광스러웠다"며 "내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느꼈고, 팀 성적도 아쉬웠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 가뻔던 2024년 일정을 마친 김도영은 당분간 국내에서 한숨 돌리며 2025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KIA, 장현식 보상선수로 LG 우완 강효종 지명

'즉시 전력감보다는 성장 가능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은 장현식의 이적 보상선수로 투수 강효종(2·사진)을 지명했다.

우완 투수인 강효종은 총암고를 졸업하고 2021년 LG에 1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강효종은 입단 후 2022년 데뷔전을 치른 뒤 3시즌 동안 2승 2패 평균자책점 6.43을 기록했다.

KIA 관계자는 "1차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한 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코칭스태프와의 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오는 12월 군 입대



를 앞두고 있는데,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한층 더 성장해서 온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자원으로 판단해 강효종을 보상선수로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효종은 다음달 2일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2026년 6월 전역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27회 한·일 하계 청소년 스포츠 교류 행사. <광주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 한·일 종목별 청소년스포츠교류 공모

광주시체육회 '축구' 종목 선정

오는 28일 1차 시범교류전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2024 한·일 지역·종목 간 청소년 스포츠교류 공모'에서 축구 종목이 선정돼 국비 2천만원을 지원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은 한·일 자치단체간 스포츠 교류가 협약된 종목의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광주시축구협회는 2

0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는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차초 등 11개교 선수단 21명은 오는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일본 센다이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교류행사에 참가한다.

전갑주 광주시체육회장은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스포츠 경험 축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선수 육성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56억원 '잭팟'... '우승하면 누구라도 상금왕'

LPGA 시즌 최종전 22일 개막... '디펜딩 챔피언' 양희영·유해란·김세영·임진희 등 11명 출격

우승 상금이 400만달러(약 56억7천800만원)에 이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오는 22일(한국 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총상금도 1천100만달러(156억3천840만원)로 어마어마하고, 우승자에게는 무려 400만달러를 몰아준다.

400만달러는 지금까지 여자 프로 골프 대회 우승 상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총상금 1천200만달러를 내건 US여자 오픈 우승자 사소 유카(일본)가 손에 넣은 상금 240만달러보다 훨씬 많다.

준우승자에게는 100만달러(13억9천400만원)를 준다.

출전 선수는 단 60명이다.

18일 끝난 더 안니카 드리븐까지 시즌 내내 받은 CME 글로벌 포인트 랭킹 60위까지 출전권을 부여했다.

컷이 없고 꼴찌를 해도 5만5천달러(7천600만원)가 돌아간다.

워낙 우승 상금이 많다 보니 올해 상금왕은 이 대회 우승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금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7승을 쓸어 담으면서 거둬들인 시즌 상금 총액이 416만4천430달러로 이번 대회 우승 상금과 비슷하다.

코르다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7승을 하고도 상금왕을 못 하



양희영

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문상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누구라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번 시즌 상금왕에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11명이다.

유해란(CME 글로벌 포인트 2위), 김세영(10위), 고진영(12위), 최혜진(17위), 임진희(22위), 김아림(25위), 안나린(29위), 양희영(38위), 신지은(42위), 이미향(66위), 김효주(69위)가 상금왕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이번 시즌에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낸 유해란과 작년 이 대회 챔피언



유해란

양희영이 눈에 띈다. 고진영은 2020년과 2021년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김세영은 2019년에 우승했다.

김아림은 지난 10일 롯데 챔피언십 우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했다.

임진희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사이고 마오(일본)를 마지막 대결에서 뒤집겠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냈다.

비록 막차로 출전권을 따지만 2015년부터 단 두 번 이 대회에서 빠졌던 김효주는 막판 스퍼트를 노린다.

세계랭킹 1위 코르다가 역시 가장 강



임진희

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코르다는 두 달 동안 필드를 비웠다가 복귀하고서도 18일 더 안니카 드리븐에서 거뜬하게 우승했다.

이미 올해의 선수 수상을 확정된 코르다는 시즌 최종전 우승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승하면 시즌 상금 800만달러를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룬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등 화려하게 부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후루에 아야카(일본), 인뤼닝(중국), 사소, 릴리아 부(미국) 등도 뒤집기 상금왕을 노린다. /연합뉴스